

# “감세·재정 지출 확대·심리안정이 해답”

## 전문가들에 듣는 2009 경제 홀로

### ④ 국내·외 경제



박 현 덕 한은 광주전남본부장



김 규 영 조선대 교수

△고려대 통계학과 졸업 △영국 쉐필드 할름대 연구과정 △한은 경제통상국 조사역 △한은 김사실 빙장 △한은 전산정보국 장

△서울대 상대 및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재무학박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올 성장률 1~2%대 … 빨라야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 ‘금융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추가 금리 인하 조치 필요

적으로 미 달러화가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을 들어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저는 악세스에 배팅하고 싶습니다. 환율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달러당 1천100원~1천2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는 투자자에게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펀드 등 주식관련 상품 손실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겹쳐 자산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어떤 분야일까요?

▲ 김 교수=제 전공이 금융분야에서도 투자분입니다. 투자분에서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는 반드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강조하기도 합

니다. 그러니 위험을 보지 않고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은 자극히 무모합니다. 각자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투자처를 고르고 집중투자보다는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 본부장=우선 분야별 수급요인을 점검해 보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재권시장은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며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자금이 단기·안전자산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현금과 단기 시장성 수신 등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경기흐름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채권이나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이 경기침체 악순환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 본부장=무엇보다도 정부가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한 총수요 진작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지출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소득 세율 인하 등 기존의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 김 교수=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리는 정부정책이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실마리는 경기부양책에

서 찾아야 합니다.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공격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은행을 통해 마련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부 부채로 조달하면 정부의 장기 지급능력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저금리를 기초로 한 공격적인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필요한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이 꺼낸 카드가 저금리 정책입니다. 올해도 저금리 정책이 계속될지 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 김 교수=올해도 저금리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일본에 비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정책이 실시될 것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는 소위 ‘유동성 함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준금리인 콜금리 인하에 상응해 시장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박 본부장=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저금리 정책은 가계의 체무 상환 부담과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금융권의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어 금리인하 효과가 아작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유인이 악화 될 수 있고, 단기 유동성이 늘어나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등 투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뛰어야 할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 본부장=우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 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안정대책도 절실히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뤄질 때 수출·문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확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 김 교수=앞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책 추진에 못지 않게 시급한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족집게처럼 예측해 유명해진 미국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아시아지역에서 향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인도네시아·파키스탄과 함께 한국을 거명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계 금융위기가 금융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금융감독을 소홀히 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구제 및 감독기관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나뉘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진=위직광기자 jrw@kwangju.co.kr

- 올해 경제성장률과 경기회복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박현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올해 GDP 성장률은 내수부진 심화 및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7%)보다 크게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나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에 가서야 경기가 회복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성장률이 4.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김규영 조선대 교수=경제성장률을 수치화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저는 1%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 들어서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는 세계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상황이 100년만의 위기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확산된 것이 최근의 경제위기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는 시점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복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교수=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국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금융 정책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인 자동차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오바마는 자동차 회사에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정치적 선택을 할 공산이 큽니다.

이는 한미FTA 비준을 앞둔 우리 자동차산업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나 고용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산업의 침체는 그렇지 않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큰 충격파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 박 본부장=세계경제 동반침체 심화와 신용경색 확산, 부동산 가격 급락 및 가계채무 부담 등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둔화가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성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의 신용경색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사자산과 가계의 체무부담이 가중된다면 2% 성장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 지난해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유가와 환율을 전망하신다면?

▲ 박 본부장=국제유가는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면 원유 도입단가 기준으로 배럴 당 평균 50달러대로 하루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큰 폭 차전과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완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 교수=작년보다는 변동 폭이 대폭 축소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수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목별로 경매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무관련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주택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오피스텔/상가/빌딩/사무실/오피스/부동산/기타 010-8033-8114	
소재지	대전·경기·부산	경매가	최저가
면적/구역	39평	297천	1984년도
층수/构架	14층	7층	8층 오피스텔
설정	대15.4㎡/16.1㎡	16.1㎡	16.1㎡
면적/구역	65.8㎡	65.8㎡	65.8㎡
설정	대13.2㎡/22.2㎡	6.92천	3.05천
면적/구역	111.1㎡	62.5㎡	62.5㎡
설정	대118.2㎡/155.8㎡	111.1㎡	111.1㎡
면적/구역	59.2㎡	59.2㎡	59.2㎡
설정	대71.1㎡	3.05천	2.92천
면적/구역	33.7㎡	19.7㎡	19.7㎡
설정	대15.2㎡/21.2㎡	1.92천	1.92천
면적/구역	22.56㎡	9.24천	9.24천
설정	대10.4㎡/23.24㎡	7.93천	4.9㎡
면적/구역	43.94㎡	30.7㎡	30.7㎡
설정	대148.1㎡/23.03㎡	31.95천	8.925천
면적/구역	19.55㎡	5.56㎡	5.56㎡
설정	대121.2㎡/131.01㎡	67.91천	37.68천
면적/구역	3.7㎡	2.47천	2.47천

근린시설/상가 경이사 010-5879-0005		주택/오피스텔/상가/빌딩/사무실/오피스/부동산/기타 010-2611-5598	
소재지	대전·경기·부산	경매가	최저가
면적/구역	49.5㎡/25.15㎡	29.5㎡	9.8㎡
설정	대1.1㎡/1.1㎡	6300만	1.1㎡
면적/구역	59.1㎡	21.7㎡	3.02천
설정	대1.1㎡	2.17㎡	2.17㎡
면적/구역	33.7㎡	19.7㎡	1.92천
설정	대1.1㎡	1.92천	1.92천
면적/구역	22.56㎡	9.24천	9.24천
설정	대15.1㎡/23.9㎡	11.92천	5.93천
면적/구역	4.7㎡	2.87천	2.87천
설정	대100.2㎡/25.78㎡	88.1천	28.6천
면적/구역	9.05㎡	4.05천	4.05천
설정	대100.2㎡/21.08㎡	38.9천	10.4천
면적/구역	14.95㎡	6.45천	6.45천
설정	대134.2㎡/24.00㎡	14.95천	4.1천
면적/구역	59.15㎡	3.05천	3.05천
설정	대88.2㎡/26.26㎡	5.92천	2.62천
면적/구역	15.1㎡/23.93㎡	11.92천	5.93천
설정	대100.2㎡/27.20㎡	21.92천	12.92천
면적/구역	11.92천	4.92천	4.92천
설정	대100.2㎡/27.19㎡	11.92천	4.92천
면적/구역	15.1㎡/23.76㎡	9.05천	4.05천
설정	대153.2㎡/27.20㎡	21.92천	12.92천
면적/구역	11.92천	4.92천	4.92천
설정	대100.2㎡/27.20㎡	11.92천	4.92천</td